

1. 대상 10-29 장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
  - a. 기록 당시 사람들은 사무엘서, 열왕기서를 통해 다윗의 존재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
  - b. 이때 역대기상은 다윗의 전기가 아닌, 다윗과 민족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
  - c. 즉,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다윗을 소개하며 왕의 백성들로서의 사람들을 소개
2. 백성들의 왕, 다윗(10:1-11:9)
  - a. 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으나, 그 왕권을 둘러싼 신앙의 원리들과 교훈들은 여전히 유효
    - i. 다윗은 죽었으나, 그가 살았던 장소와 신앙정신은 살아있어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기 때문
    - ii. 즉, 다윗 왕은 없으나, 그 왕권과 관련된 신앙의 원리들은 지금도 유용하다는 것
  - b. 다윗의 신앙의 특성을 강조(10 장)
    - i. 10 장은 사울의 이야기?
      1. 사울의 불의한 삶(불충성, 불순종,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)을 소개
      2. 이러한 이유로,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(쇠퇴) 다윗이 선택되었다는 것
      3. 사울의 쇠퇴 이유를 밝힌 것은 다음 계승자 다윗의 신앙과 품성을 말하기 위한 것
    - ii. 다윗과 그의 신앙과 품성(참조, 대상 10 장은 삼하 3:1 의 요약)
      1. 다윗의 신앙과 품성은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
      2.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가 한 마음일 때, 그 나라와 백성들은 번영하게 되는 것
        - a. 다윗에 대한 구약성경 기록은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품성을 강조
        - b. 신약도 다윗의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(행 13:22, “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”)
  - c. 다윗의 백성들이 모이다(11:1-3)
    - i. 모인 온 백성들의 고백
      1. 다윗과 백성들과의 하나됨을 인식(1)
      2.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찬양(2)
      3. 다윗에게 행하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왕으로 받아들임(3)
    - ii.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(2, 참조, 시 89:19.20-28,29)
    - iii.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취되고 완성
      1.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의 하나되심(참조, 히 2:11, 14, 17)
      2.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찬양(참조, 히 2:10, 12:12)
      3.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인식(눅 1:32, 2:11, 3:22, 9:35)하고 왕으로 받아들임
  - d. 다윗의 성이 세워지다(11:4-9)
    - i. 성의 이름들
      1. 예루살렘(의미, ‘하나님과 백성들이 거하는 영원한 집’): ‘영원한 성’을 강조
      2. 여부스(의미, ‘여부스라 불렀던 옛 가나안 족속의 집’): ‘역사적 도시’를 강조
      3. 시온(의미, ‘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집’): ‘영적 진리의 장소’를 강조
      4. 다윗 성(의미, ‘다윗이 통치하는 집’): ‘강한 정치력을 있는 장소’를 강조
    - ii. 영원하고, 역사적이고, 영적 진리의 저장소이며 강한 통치력이 있었던 성이 세워졌다는 것
    - iii. 이러한 이름들은 다윗이 강성하고 안정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
3. 왕의 백성들(11:10-12:40)
  - a. 백성들의 특성
    - i.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백성들. 이때 왕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중심점

- ii. 이것은 한 주(왕) 되신 X를 중심으로 묶여진 신약시대의 한 교회, 한 믿음에 대한 모형
- b.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각각의 다양한 개성들(은사들)을 강조(참조, 고전 12 장)
  - i. 왕에 속한 하나된 동일한 백성들이었으나,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었던 것
    - 1.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으나, 같은 생각과 소리를 낸 것이 아니었으며
    - 2. 왕을 섬기는 일에 각각 다른 방들을 거하며 다른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
  - ii. 이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강성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꼭 필요했던 자들
  - iii. 이들의 여러 다양한 개성들은 여러 다양한 은사들로 구성된 신약교회의 모형
- c. 8 그룹으로 구성된 다양한 백성들
  - i. 뛰어난 자들(11:11-14): 야소브암, 엘르아살, 삼마(삼하 23:11)
    - 1. 다윗의 장수들 중 제일 귀한 장수들로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들
    - 2. 이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된 자들(11:15-19)
    - 3. 이들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으나 이들의 헌신과 희생적인 모험정신은 잊혀질 수 없는 것
  - ii. 그늘에 가려진 뛰어난 자들(11:20-25)
    - 1. 결코 둘째가 아니었으나, 첫째 3인에 들지 못한 자들
    - 2. 아비새(참조, 삼하 2:17-24): 둘째 2인 중,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자
    - 3. 브나야: 사자와 애굽의 장대한 용사(2.25m의 키)를 죽였던 시위대 장관
  - iii. 기억되지 않는 자들(11:26-47): 30명의 용사들
    - 1. 이름만이 소개되나, 수십 수백의 군사들을 거느린 뛰어난 장수들
    - 2. 사람들에게겐 기억되지 않는 자들이나,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(참조, 딤후 2:19)
  - iv. 영적 통찰력 있는 자들(12:1-7)
    - 1. 베냐민 지파였으나,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여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(참조, 삼상 27 장)
    - 2. 인간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,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선택을 한 자들
  - v. 용맹스러운 자들(12:8-15, 삼상 23-26 장)
    - 1. 다윗이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, 다윗에게 나아온 갓 지파의 용사들(참조, 23-26 장)
    - 2. 이들의 특징(8)과 명성(14)
  - vi. 영감된 자들(12:16-18)
    - 1. 베냐민과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나아온 특별한 자들
    - 2.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다윗에 대해 예언한 삼십 인의 두목 아마새(18)
  - vii. 조심성이 있는 자들(12:19-22)
    - 1.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갈 때, 제일 나중에 나아와 합세한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
    - 2. 모두가 용사들이요 다윗의 군대장관이 된 자들
  - viii. 다윗에게 나아온 군대들(12:23-37)
    - 1. 다윗을 돕기 위해 나아온 연합된 각 지파의 군사들
    - 2. 아울러 제사장이며 용사인 여호야다와 사독도 소개
- 4. 결론과 교훈(12:38-40)
  - a. 강건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바른 왕과 ‘한 마음’으로 연합된 다양한 백성들의 필요성을 강조
  - b. 한 마음을 갖지 못해 아이성에 패한 이스라엘과 사시시대의 각 지파의 분열로 인한 혼돈초래
  - c. 강건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: 바른 지도자와 공동체의 헌신과 한 마음